
독서란 무엇인가

독서 = 공부

공부란 지식체계의 숲을 보는 것



처음엔 미시, 나중엔 거시를!

우리는 지문이라는 숲을 보기 위해 문장이라는 나무를 살펴보아야 한다

독서의 의의는 공부를 잘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공부는 거의 대부분이 텍스트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잘 하기 위한 게 독서죠. 즉, 여러분은 독서 지문을 풀 때마다 해당 지문을 '공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공부를 이렇게 생각해요. 숲을 보기 위함이라고.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지식은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공부는 숲 속에서 하게 됩니다. 숲 속에서 우린 숲 전체를 봐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숲 속의 나무 하나 하나를 다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을 쏘다녔어요. 그렇게 미시적인 정보들을 수집해 나가다보니 지금 봐도 놀라운 정확도의 지도를 만들게 된 겁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미시로 시작하고, 나중엔 거시를 볼 수 있어야죠. 미시를 제대로 파악해야 거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통찰을 이루었다는 것은 미시와 거시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서는 해당 지문을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지문을 숲이라 치면, 나무는 뭘까요? 문장이죠. 나무를 이루는 잎사귀와 줄기, 기둥, 뿌리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 될 겁니다. 문단은? 숲 속에서 나무가 상대적으로 밀집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겠죠? 맹그로브 숲, 침엽수림, 바오밥 나무 숲, 정글.... 숲을 구성하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숲의 구조도 천차만별입니다. 뽕뽕함의 정도, 나무의 높이, 잎사귀의 밀도, 숲의 흠바닥... 등등

다시, 이걸 지문에 대입하면, 독서 지문도 제재로 그 특성이 나뉘곤 합니다. 주로 쓰이는 구조가 조금씩 바뀌고, 글쓰기 논리도 약간씩 차이가 나요. 제재의 특성을 담기 위해 지문의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지문과 논리철학지문, 경제정책지문 등이 각각 저마다의 구조를 갖게 되는 이유가 납득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를 분석해보셨냐는 거예요. **해당 내용을 담기 위해 지문은 어떤 흐름을 갖고, 어떤 구조로 서술하는가.**

독서의 목표

필자와 공감하라! → 글쓰기 논리

이해는 도구

발화의 주제 = 필자가 말하는 주제

필자가 지문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

지문의 화제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전개되는가

내용과 형식은 항상 서로를 따른다

독서의 목표가 뭔가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맞죠. 하지만 착각하면 안돼요. 이해는 도구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일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독서의 본질을 가장 잘 가르치는 강사가 김동욱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김동욱 선생님은 항상 글을 읽을 때 뭘 가르치냐면요, 필자와 공감하라고 해요. 필자와 공감. 너가 필자면 어떻게 서술할 것 같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나면, 이걸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절대로 지문 독해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절대로요. 이게 무슨 말을 내포하는 건지 찬찬히 뜯어 보시다.

피렘 선생님의 표현을 빌려 쓰겠습니다. 저는 수능 독서의 목적을, 글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문의 화제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전개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목표가 있었나요? 글을 읽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해요, 항상. 어려운 지문을 읽으면서 본인이 뭘 읽는지 모르고 있을 때, 본인이 이걸 읽으면서 뭘 알아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잡혀있다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문의 화제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전개되는가.

화제. 화제가 뭐죠? 주제? 그쵸.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주제는 반쪽짜리 답이에요. 자, 이 단어를 한 번 뜯어보시다. 화는 뭘 의미할까요? 말하는 거. 제는? 주제. 네, 화제는 말하는 주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김동욱 선생님과 관점과 일치하죠?

지문 전체적으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 이걸 말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화제가 소개되는 거예요. 문단이 왜 나뉘져 있겠어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뀌니까. 그럼 여러분은 문단을 읽으면서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봐야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어차피 여러분은 독서를 할 때 미시적인 것부터 볼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독서 즉, 공부하는 거시적인 것을 보기 위함이라고 했죠? 공부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숲은 어떤 내용을 담기 위해 특정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요.

형식은 항상 내용을 따라요. 이걸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문이 왜 특정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화제를 설명하고 흐름을 구성하는지 같이 지문을 구성해보면서 알아보시다.

뭐가 좋을까요? '아이패드'로 지문을 만들어 볼까요? 이 아이패드를 설명하기 위해 뭘 하실래요? 먼저 저는 이걸 어떤 관점으로 설명할 건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가 세상에 미친 영향'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아이패드가 왜 나왔는지, 배경을 설명하겠죠. 그리고 아이패드의 기능들을 설명할 건데, 이 기능이 왜 나왔는지는 아이패드가 나온 배경과 연관짓는 게 내용을 풍부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화제를 특정 흐름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걸 파악해야 해요. 따라서 우선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뭘 읽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읽고 있는 **정보의 역할**이 뭔지 끊임없이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 문장은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이 문단은 결국 뭘 말하고자 하는 거며, 결국 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 화제가 나열되는데, 그들은 서로 관계가 있어요. 이어져 있다고요. 이게 흐름이 되고 구조가 됩니다.

화제들이 일정한 구조로 연결된 형태는 결국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게 돼요.

“근데, 너 말대로라면 우선 숲 속에서 나무를 일일이 살피며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데, 흐름을 파악하는 타이밍이 너무 늦게 되는 거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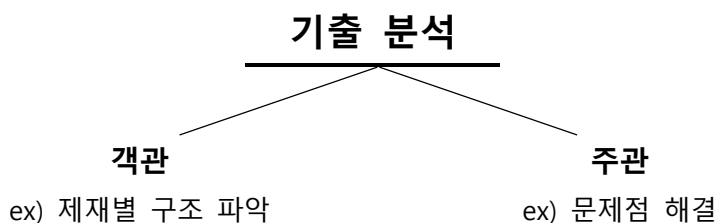
그래서 첫 문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글쓰기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말하고 세부 내용을 서술합니다. 두괄식 서술을 한다고요. 요즘 지문들이 불친절하다고는 하지만, 이 원칙을 벗어나진 않아요. 첫 문단, 그리고 각 문단의 첫 문장의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부터 뭘 말할 건지를 담고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출 분석을 여태 말한 것들을 토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독서 지문은 글의 본질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가 뭘 읽고 있는가
결국엔, 정보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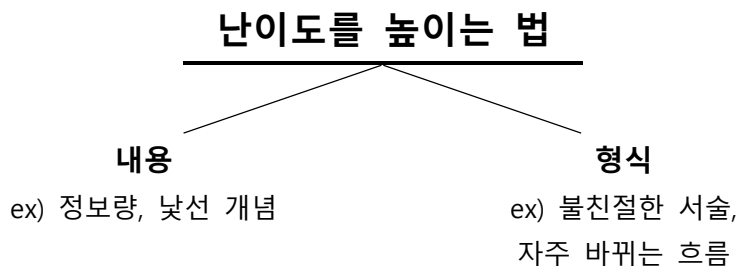
기출 독서 지문 분석의 방법

수능 독서 지문은 글의 본질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문장 → 문단 → 지문

처음에 집중하라! → 필연적인 글쓰기 논리



0. 단어 : 단어뜯기 단어에 대한 **축자적** 해석

- 통화량 : 맥락 고려 X

→

- 복고적 : 맥락 고려 O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
 ...
 ...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다.

21.06 과거제 (나) - [04]

→

법인세 / 소득세 // 유인비용 / 접근비용

1. 문장

LV.1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21.06 과거제 (나) - [01:02]

LV.2 : 약간의 정보량과 수식어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아 피사체의 상이 맺히고 피사체의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인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에 영상으로 저장된다.

21.06 카메라 [02:04]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다

21.06 과거제 (가) - [03:03]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21.06 특허권 [01:01]

LV.3 : 그 자체로 어려움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06 특허권 [04:05]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17.11 반추위 [01:03]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20.06 금융안정성 [01:03]